

2010년 성동구의회 비교시찰

○ 기 간 : 2010.10.14 ~ 10.29

○ 방문국 : 싱가포르, 홍콩

#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귀국보고서



성 동 구 의 회

#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다녀와서

## ● 연수목적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에서 선진 도시국가로 발돋움한 싱가포르, 홍콩을 비교시찰함으로써 도시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을 찾아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 ● 연수국가

싱가포르, 홍콩

## ● 연수자

성동구의회 윤종욱 의장 외 13명

## ● 연수기간

2010. 10. 24 ~ 10. 29

## ● 연수주요일정

- ☞ 2010. 10. 24 : 싱가포르 도착
- ☞ 2010. 10. 25 : 싱가포르
  - 국회의사당, 국립박물관 방문
  - 한국대사관 방문
- ☞ 2010. 10. 26 : 싱가포르
  - 아트하우스(옛 국회의사당) 방문
  - 뉴워터(하수물 재생 공장) 견학
- ☞ 2010. 10. 27 : 싱가포르
  - 도시개발국, 도시개발 현장 견학
  - 소방갤러리 방문
- ☞ 2010. 10. 28 : 홍콩
  - 국회의사당 방문
  - 도시개발 전시장 견학
- ☞ 2010. 10. 29 : 인천도착

## ● 작성자

윤종욱(성동구의회 의장)

## 프롤로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쇼핑의 메카’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홍콩!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이곳은 우리나라와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나라다. 두 곳 모두 식민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지하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했다. 더욱이 싱가포르와 홍콩은 식량과 물 자원마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놀라운 도시발전을 이뤄냈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도시 경쟁력 향상의 비결을 근면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 등에서 꼽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는 어떤 배경과 원동력이 숨어있었던 것일까? 이들 국가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민선 제6대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호기심을 품고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직접 이들 국가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앞으로 정직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고민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워야할 점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4년간의 의정생활에 비옥한 거름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정에 올랐다.

## [도착 당일]

### 1. 싱가포르에 도착하여 (저녁)

말레이시안반도 남단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1/3 규모로 1시간이면 자동차로 전국 일주가 가능한 작은 나라이다. 인종분포는 중국계 77%, 말레이시아계 14%, 인도계 7%, 기타 2%를 차지하고 있다. 저녁 무렵 싱가포르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다가온 첫 인상은 깨끗한 도시라는 점이였다. 거리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이었으며, 인공조경이 매우 우수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잘 된 점 3가지를 꼽으라면 정치, 나무 그리고 물이라고 한다. 비싼 것 4가지는 자동차, 술, 담배, 기름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유해한 것은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대신 필수품들은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몹시 덥고 습한 기후다 보니 반소매 옷과 반바지 차림의 사람들이 많았다. 늦가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이국적인 풍경과 기후 탓에 우리 구의회 일행들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곤함도 잊고 설렘과 기대로 이번 연수의 첫날밤을 맞았다.

## [1일]

### 1.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우리 의원들의 첫 비교시찰 방문지는 싱가포르 국회의사당이였다. 엄숙하고 딱딱한 곳이란 선입견과는 달리 싱가포르 국회의사당은 건물자체부터 자연 친화적인 미관으로 친숙하고 따뜻하고 기분을 좋게 했다. 국회의사당 안내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1999년 9월에 현재는 Arts House로 사용 중인 건물에서 이 곳 새 국회의사당으로 이전한 것이라 한다.



[싱가포르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곳에서 싱가포르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 국민들과 공무원, 정치인들 모두는 현재 싱가포르가 향유하고 있는 발전과 번영의 근본적인 기반을 싱가포르의 훌륭한 정치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제도와 오랜 기간 정치의 안정에 기초한 사회적 안정과 예측가능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계속 이를 수정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9.2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부패 없는 청렴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더 깨끗한 사회, 더 깨끗한 정치풍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2. 국립박물관

싱가포르는 이색적인 박물관들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국립박물관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최근 현대식으로 재단장한 곳이다. 1849년 Raffles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으며, 독립 이후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다고 한다. 박물관 내부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주변에서 발견된 선사시대의 석기류, 의류, 무기 등에서부터 싱가포르의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과 국가 수립을 위한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전경]

노력 과정들까지를 보여 주는 인공 공예품, 사진, 복제품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박물관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그 자체로 고풍스런 느낌을 주었으며, 유리 아트리움이 증축되어 옛 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박물관이었다.



[국립박물관 앞에서]

서울시만한 크기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는 한 해에 천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한다고 한다. ‘Garden City’라고 불릴 정도로 국토 전체를 건축물과 어울리게 잘 꾸며 놓기는 하였으나, 역사가 길지 않고 주목을 끌만한 명소가 없어서 관광여건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이 없음에도 이렇게 관광대국이 된 데에는 싱가포르 정부의 전략적인 관광유치 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키우기 위해 「르네상스 시티플랜」이라는 강력한 문화예술 진흥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싱가포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인프라 개선은 물론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동구 역시 다양한 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개발한다면 세계 속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지역이 되리라 생각을 해봤다.

### 3. 한국대사관 방문

다음 일정으로 우리는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대사관 앞에서 오준 대사가 우리 의원들을 일일이 맞아주었다. 2010년 3월부터 싱가포르 대사로 부임한 오준 대사로부터 한국 대사관의 업무와 싱가포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경제 대표부를 개설한 뒤 1971년 7월 총영사관으로 승격하였으며, 1975년 8월 외교관계 수립과 함께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하였다고 한다. 1990년 10월에는 주한 싱가포르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80년 3월 제1차 한국·싱가포르 통상장관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뒤 양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오준 싱가포르 대사 주재 간담회]



[오준 싱가포르 대사와 함께]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정부’,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나라의 랭킹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8천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강대국이다. 또한 깨끗한 전원도시, 마약과 폭력이 없는 나라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장점은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보다는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작지만 강한 나라를 추구하는 정책목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국토가 작다는 사실은 주어진 것이라 바꿀 수 없지만 강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대사관을 방문한 것은 비교시찰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우리에게는 큰 수확이었다. 오준 대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사항을 쉽게 스크린 할 수 있었다. 그중 우리가 싱가포르로부터 배워야 할 점 몇

가지를 꼽아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치제도의 끊임없는 자기쇄신이다.** 싱가포르인들은 현재 싱가포르가 향유하고 있는 발전과 번영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싱가포르의 훌륭한 정치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다.** 부패척결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며 세계적으로 부패가 가장 잘 통제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엘리트 위주의 인적자원 육성이다.** 지하자원은 물론 식량과 물, 모래마저 부족한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엘리트 위주의 인적자원 육성에 주력하였다.

**넷째, 하수물 재활용 사례이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므로 고도의 정제기술로 박테리아 등 하수물속의 유해성 미생물을 거의 완전히 제거하여 순도높은 깨끗한 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싱가포르 인구는 중국계 75%, 말레이계 13%, 인도계 9%, 기타 3%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문화 속에서 국민적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섯째, 적극적인 개방 정책이다. 1년내내 덩기만 하고 자원도 없고 국토도 협소한 싱가포르가 어떻게 1인당 국민소득 3만8천불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을까? 그 대답은 바로 ‘개방’ 이었던 것이다.

[2일]

1. 아트하우스(옛 국회의사당)

둘째 날 우리 일행은 아트하우스, 즉 옛 싱가포르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였다. 아트하우스는 현존하는 싱가포르의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의 하나로 본래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상인이었던 John Argyle Maxwell의 사택이었다고 한다. 영국 식민지시절에는 행정부의 청사로 사용이 되었고, 독립 후엔 싱가포르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는데, 2004년 3월부터는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후에 Arts House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아트하우스 앞에서]



[아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며]

옛 국회의사당을 둘러보던 중 관계자로부터 싱가포르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초등학교는 ‘소학’이라 부르는데 6세가 되면 입학한다고 한다. 이 학제는 기초단계(소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와 지향단계(소학 5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나누어지며 기초단계에 대한 교과과정의 특색은 교과의 80%가 영어, 모국어(중국어-중국어, 말레이시아계-말레이어, 인도계-타밀어)와 수

학으로 되어 있고 모든 소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졸업시험을 치르며 계속하여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중학교를 배정받게 된다고 한다.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1998년 싱가포르 정부는 2008년까지 세계유명대학 10개교 유치를 정책목표로 하는 WCUP(World Class University Program)을 계획하였고, 2002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싱가포르를 세계 교육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Global Schoolhouse 전략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Global Schoolhouse 전략은 타국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세계의 유수대학 유치를 통하여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싱가포르에 끌어들이는 역할이 더 크다고 한다. 전체학생의 20%가 외국학생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 2. 뉴워터(하수물 재생 공장) 견학

싱가포르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이다. 연중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2배인 2,400mm로 비는 많이 내리지만, 전 국토면적이 서울시만한 관계로 내린 비를 모아둘 수 있는 땅이 적기 때문이다. 싱가포르가 생각한 대안은 빗물저수시설 확충(water catchment), 해수담수화, 그리고 하수물 재생수(NeWater)인데, 이중 NeWater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NeWater는 고도의 정제기



[뉴워터 앞에서]

술로 박테리아 등 하수물속의 유해성 미생물을 거의 완전 제거한 순도 높은 깨끗한 물이며 현재 5개 공장에서 NeWater를 생산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싱가포르 물 수요량의 30%를 NeWater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싱가포르의 물 사정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많이 열악하였으나 거의 폐수이다 싶은 하수물을 훌륭하게 재생시키고 있었다. 매우 본받을 만한 우수한 사례라 생각되었다.

## [3일]

### 1. 도시개발국, 도시개발 현장 견학

어느덧 비교시찰 3일째가 되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국을 방문하였다. 1층 전시장 내부를 둘러보니 도시개발 도면 등 도시개발 관련자료가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주택보유율이 90%에 달할 만큼 대부분의 가정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되기까지는 주택문제를 정치,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어 온 싱가포르 정부의 꾸준한 정책이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이 싱가포르와 같이 뿌리 깊고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갖지 못한 이민자 중심의 사회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하는 정책



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소속감을 고취하여 정치적 소요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다인종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공공주택의 계획, 건설,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개발청이 있으며, 흔히들 주택개발청이 짓는 공공주택을 HDB라고 부른다고 한다.



[도시개발국 견학]

주택정책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싱가포르 정부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하여 공공주택건설을 비롯한 주요 국가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의 80% 가까이가 국유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국유지를 통해 저렴한 택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99년 동안의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장기임대 형식이기 때문에 주택이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서 분양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앙적립기금을 통해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로서는 현실 여건이 다르지만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 2. 소방갤러리 방문

소방갤러리는 총 2층 규모로 소방차, 물차, 소화기 등 각종 소방장비와 관련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한 눈에 소방서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 소방서는 옛 기능과 모양을 100년이 넘도록

그대로 승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통을 고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소방갤러리를 방문하여]

소방갤러리 방문 후에 우리는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건설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양하고 현대적인 싱가포르의 건물들은 싱가포르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에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었다. 한국 건설업체의 싱가포르 건설 수주는 1972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213건, 187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중 5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국토가 협소한

점을 생각해 보면 실로 대단한 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건설업체가 건립한 건물을 일일이 찾는 것보다 우리업체가 건립하지 않은 건물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는 싱가포르인의 농담이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시장에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건설업체들까지 뛰어들어 점점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그간 축적한 신뢰와 좋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을 변모시키는 데에 계속 일조할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파이팅을 기대해 본다.

### 3. 기타 싱가포르 벤치마킹 사례

#### ㉔ 상징화 사례 (싱가포르의 상징, 멀라이언)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인 독특한 형태의 멀라이언(Merlion)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사자는 국명의 유래인 Singa를, 물고기는 항구도시를 의미한다고 한다. 멀라이언은 특별한 설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싱가포르에 어울리는 아이콘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1972년에 만들었다고 한다. Fullerton 호텔 앞 Anderson교 옆에 위치한 멀라이언



[거대한 규모의 센토사섬 멀라이언]

파크에는 8m 높이의 하얀 멀라이언상이 오늘도 물을 뿜어내고 있는데, 이곳은 언제나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우리나라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다. 우리도 풍부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서울, 성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 사고위험 주의표시**

싱가포르 내 보도와 접한 도로에서는 두 줄로 된 지그재그선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줄로 된 지그재그선은 ‘보행인에 대하여 주의’ 하라는 표시이며, 두 줄로 된 지그재그선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곳에 표시하며 ‘보행인에 대하여 매우 주의’ 하라는 의미란다. 서울에서도 얼마전부터 횡단보도 직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보행인 통행인 잦은 좁은 도로 등에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 고정되어 있는 빗물받이**

싱가포르 내 도로를 걷어가던 중 눈에 띈 빗물받이를 보고 우리나라의 빗물받이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고리로 연결되어 임의로 떼어낼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몇 해 전인가 뉴스보도에서 밤사이 빗물받이가 없어진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믿고 살아가야 할 선진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고정식으로 바뀌야 좋은지는 생각해 볼 일이겠지만 우리와 다른 유형으로 참고를 위해 신는다.



보행인에 대하여 매우 주의 !



고정되어 있는 빗물받이

**㉢ 애완견 배변 처리를 위한 공원내 재활용 비닐 비치**

싱가포르 공원 내에는 미처 애완견 배변용 비닐을 준비하지 못한 공원 이용자를 위하여 비닐이 비치되어 있었다. 규제와 강제만으로 문화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회로 문화수준에서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러나 행동할 수 있는 문화풍토를 널리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㉞ brochures 재활용

싱가포르 공원 내에는 brochures 재활용 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물, 흙, 모래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니만큼 싱가포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듯 싶다. 검소하며 절약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선진문화의 모습이 아닐는지 생각해 본다!



공원내 재활용 비닐(애완견 배변 처리용)



brochures 재활용

㉞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분리수거 용기



싱가포르 CHANGI공항에서 본 분리수거 용기이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디자인 또한 깔끔하여서 사진에 담아보았다. 글을 모르는 외국인이라도 다른 곳에 넣지는 않을 듯 싶다. 좋은 사례라 생각되어 진다.

㉞ 보행인과 운전자가 각각 볼 수 있는 보행신호등

싱가포르에서는 보행인이 볼 수 있는 보행신호등과는 별도로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신호를 같이 부착하였다. 앞만 보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미처 보행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㉞ 공간 효율을 살린 벽면 광고

좁은 국토의 싱가포르에서는 벽면의 좁은 틈을 이용하여 각종 안내책자를 비치하였다. 도서관에서 책을 뽑아 보듯이 필요한 내용을 앞으로 끌어내어 볼 수 있었다. '공간활용의 미학!'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 [4일]

### 1. 홍콩 국회의사당

싱가포르를 떠나 우리는 홍콩에 도착했다. 홍콩에서의 첫 방문지는 홍콩 국회의사당이였다. 최근까지 홍콩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 홍콩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란타우섬에서는 5000년 전의 가마터가 확인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바위 조각 등도 고고학적 탐사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홍콩 국회의사당 앞에서]

1960년대 이후의 홍콩의 현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60년대 말을 전후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 과학기술과 현대화 관리 경영 방식이 홍콩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홍콩은 금융, 공업,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홍콩은 중국과 세

계가 이어지는 관문이자 국제 금융과 무역의 도시로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방직업과 기초 과학 분야는 광동성에 직접 투자하고 다국적 기업의 본부를 홍콩에 유치하여 홍콩은 동서양, 중국과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세계의 홍콩, 동양의 진주가 된 것이다. 이 시기 홍콩의 중국인 재벌은 세계의 재벌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중국인 재벌들과 세계적인 화교재벌들이 홍콩을 무대로 중국을 드나들며 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홍콩도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세계의 관문이자 금융과 무역의 세계적 도시, 즉 동양의 진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물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었다.

### 2. 홍콩 도시개발 전시장

우리는 홍콩의 도시개발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시개발 전시장을 견학하기로 했다. 홍콩의 오늘은 Old & New 이 두 단어가 함축한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100년 전 건물 옆에 아직 페인트 칠 냄새가 풀풀 나는 초현대식 빌딩이 벽을 붙이고 서 있는 곳이 홍콩이다. 홍콩 사람들은 집을 무조건 헐지 않고, 되도록 옛 모습을 되살려 추억과 역사와 함께 어울려 산다. 게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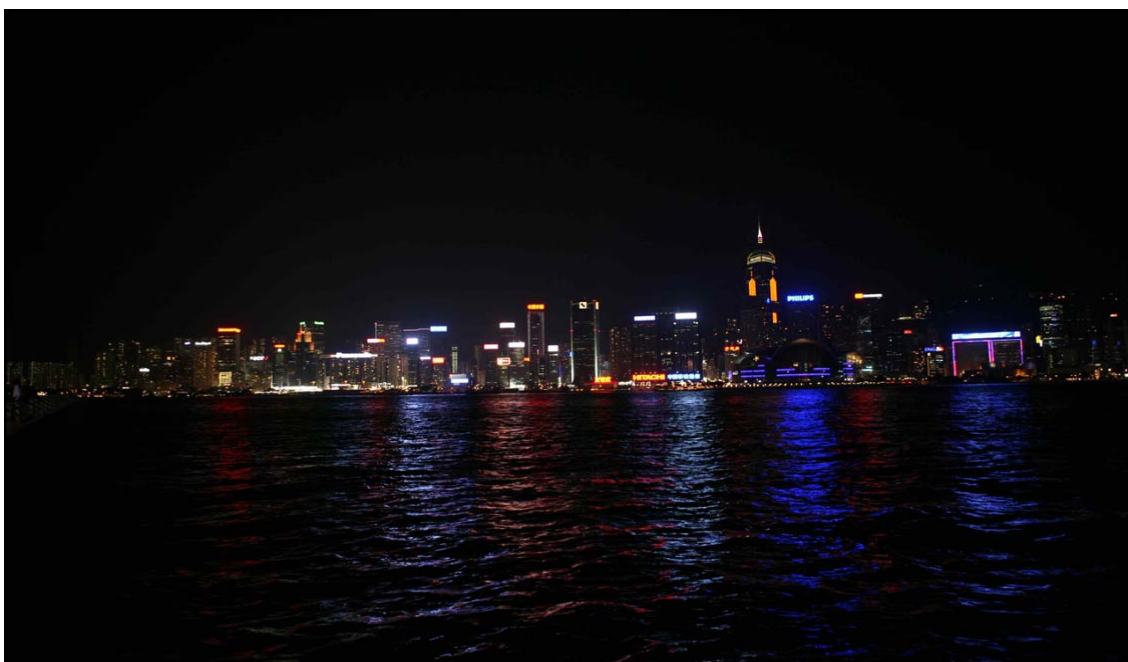
가 그 추억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놓고 구경시킨다. 홍콩 사람들은 무엇이 돈이 되고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다. 2008년부터 도시개발정책의 가닥을 보존을 우선하는 쪽으로 잡은 홍콩 정부는 보존 가치가 높은 집을 포함한 1단계부터 시작해 2단계, 3단계로 나눠 도시건축물 보존을 강도 높게 강화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지만 홍콩의 미래는 과거의 보존에 있다고 도시정책자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홍콩은 20세기 후반 들어 미국 시카고와 더불어 도시 전역의 건축물이 주목할 만한 문화상품으로 떠오른 대표적 국제도시이다.



[홍콩 도시개발 정책설명을 들으며]

“홍콩의 미래는 과거의 보존에 있다”라는 홍콩 도시정책자들의 말은 참 의미심장하게 가슴에 다가왔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옛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성장위주의 미래로 치닫는 개발정책에서 이제는 차분히 과거의 보존에도 눈을 돌려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살려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로 서울을 가꾸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들었다. 또한 야시장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실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는 입장에 서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뜨리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 것 같은 홍콩의 야경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해 보려 한다. 홍콩 야경은 우리 가요의 노랫말에도 등장하듯이 매우 유명하다. 더 좋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한강과는 다른 느낌의 홍콩야경을 보았다. 야간조명 제한 등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바람직할 지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아래의 사진을 싣는다.



[홍콩의 야경]

## 연수후기

영국 속담에 “널리 여행하면 현명해진다.”는 말이 있다. 아이슬란드 속담에는 “여러 곳을 여행한 자만이 지혜롭다.”는 말도 있다. 이 속담들은 널리 견문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개방한 나라만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 말로 해석해도 좋을 듯 싶다.

지난 5박 6일은 비록 길지 않은 일정이긴 하였지만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선진 도시국가로 발돋움한 싱가포르, 홍콩 두 나라의 그간의 성장과정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며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성동의 미래상을 멀리 해외에서 스크린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 서울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는 두 나라를 비교시찰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을 몇 가지 들여보면, 정치제도의 끊임없는 자기쇄신, 강력한 반부패 정책, 엘리트 위주의 인적자원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적극적인 개방 정책, 작은 도시에 우거진 숲 조성, 성공적인 수변 개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두 도시국가를 견학하며 보고 느꼈던 점은 분명 우리에게 보약과도 같이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비교시찰에 참여한 14명 의원 모두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 한층 고심할 것이며 또한 이번 시찰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 및 의정활동에 적극 적용하려 노력할 것이다. 더 큰 희망과 다짐을 배우고 돌아온 연수기를 이것으로 맺는다. <끝>